



김병록 씨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두를 수선해 무료로 나누고 있다.

## 나눔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비결

서울 상암동 방충국거리와 맞닿은 한 골목에 눈에 들어오는 간판이 있다. ‘사랑+희망나눔 전시관’이라는 간판이 붙은 컨테이너 박스에는 ‘기부 받은 신발, 가방 등을 정성껏 손질했으니 마음에 들면 가져가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문을 열면 아담한 공간에 구두, 운동화, 스니커즈, 샌들 등 온갖 신발과 가죽가방까지 예쁘게 진열되어 있다. 사용한 흔적은 있지만 숨씨 좋게 고쳐져서 바로 신고나가도 좋을 만큼 깨끗하다. 그도 그럴 것이 꼬박 50년간 구두를 수선해 온 장인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이다.

이 아담한 전시관은 상암동에서 구둣가게를 운영하는 김병록 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그는 1990년대 중반부터 5천 켤레의 구두를 수선해 소외된 이웃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이발봉사를 하는 등 25년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일상 속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아픔을 겪는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노후를 위해 마련했던 수억 원 가치의 땅을 파주시에 기부했다. 이렇게 꾸준히 이웃을 도와온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제34회 아산상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 그는 이 상금도 파주시청에 기부해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쌀을 후원했다.

###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 시작한 봉사

김병록 씨는 열한 살부터 구두를 닦기 시작했다. 복잡한 집안 사정으로 가출

해 직업교육기관인 소년직업보도원에서 구두 닦는 기술을 배웠다. 낮에는 길에서 구두를 닦고, 밤에는 야학에서 공부를 했다. 녹록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야학에서 한글을 가르쳐 준 대학생들, 추운 겨울에 국밥 한 그릇을 사준 다방 주인 등 그에게 따스한 손을 내밀어주는 이들이 있었다. 김병록 씨는 어른이 되면 꼭 그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다.

17세에 홀로 서울로 올라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던 그에게 폐결핵이 찾아왔다. 일을 그만두고 기도원에 머물며 치료하던 중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이제부터의 인생은 덤으로 얻은 것이니 좋은 일을 하며 살자’고 마음먹었다. 술과 담배를 끊고 모은 돈으로 노숙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소년소녀가장들을 도왔다.

1996년 고양시 행신동에 구둣가게를 열고 ‘버리는 구두가 있으면 가져다달라’는 안내문을 붙

이고 헌 구두를 모았다. 하나하나 손을 보고 깨끗하게 고친 구두를 모아서 어르신,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등 필요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다. 1998년 경기도 파주 수해 때 1,000여 켤레, 서울시 문래동의 노숙인지원센터와 경기도 성남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200켤레 등 10년 넘게 5,000여 켤레의 구두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지금은 '사랑+희망나눔 전기관'에 모아 필요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 하면 할수록 봉사에 중독되다


김병록 씨에게는 구두수선 말고도 한 가지 기술이 더 있다. 그는 1996년부터 월 2~3회 일요일마다 요양원, 노인정 등을 찾아다니며 노인들의 머리를 다듬고 있다. 3개월 동안 학원에 다니며 이발 기술을 배웠고 아내를 비롯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았다. 파주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 고양소망의 집, 남양주 초원의 집 등 주로 노인들을 위해 이발봉사를 하던 그는 최근에는 동자동 쪽방촌 노인들과 노숙인들을 찾아가고 있다. "바쁘게 살다보니 저를 도와준 분들에게 은혜 갚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게 해주신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갚아 나가는 생각을 했죠. 봉사를 하면 할수록 중독이 되는 거 같아요. 세상에 나쁜 중독도 많지만 저는 좋은 중독에 빠져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게 제 자부심입니다."

봉사하는 그의 곁에는 아내와 아들이 항상 함께한다. 아내도 이발기술을 배워서 함께 머리카락을 다듬어주고 아들은 곁에서 심부름과 청소를 담당한다. 김병록 씨 가족에게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익숙한 일상이다. 그러기에 수억 원 가치의 토지를 파주시에 기부한다는 김병록 씨의 쉽지 않은 결심에도 가족들은 따랐다. "나중에 나이 들면 오갈 곳 없는 이웃들과 함께 농사 지으며 살려고 했었죠.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며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왔구나 하는 생

각이 들었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며칠 고민 끝에 기부를 결심했어요. 갈등하던 아내도 결국 동의해줬고, 애들도 잘했다고 하더군요."

### 봉사하는 삶의 기쁨을 보여주다

김병록 씨는 지난해 작지만 의미 있는 나눔을 하나 더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동전 모으기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구두가게 앞에 항아리를 하나 놓고 '행운의 항아리'라 이름 붙였다. 사용하지 않는 동전을 모아달라고 안내문도 달았다. 그는 구두를 닦거나 고치러 온 손님들에게 500원, 1,000원씩 깎아주고 잔돈을 항아리에 기부해 달라고 한다. 구두도 고치고, 기부도 하니 행운 아니냐고 권하는 그의 말에 손님들도 선뜻 기부한다. 그 항아리가 일 년 만에 삼분의 일 가량 채워졌다.

"처음에 항아리를 밖에 두니까 다들 '돈을 훔쳐갈 거 같다'고 걱정했었어요. 저는 그저 보태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넣을 것이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걱정이 무색하게 돈이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단골손님들이 자주 '항아리에 얼마나 찼나'고 궁금해 해서 줄자도 꽂아놔요. 이제는 저도 언제쯤 이 항아리가 찰지, 가득 차면 얼마쯤 될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김병록 씨에게 부자와 빈자는 각자의 기준일 뿐이다. 100을 가져도 모자란 사람은 빈자고, 10을 가져도 넘치는 사람은 부자다. 받은 은혜를 갚으며 봉사하는 삶의 기쁨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김병록 씨의 삶에서 나눔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비결을 엿볼 수 있었다.  글 편집부



김병록 씨는 1996년부터 월 2~3회 일요일마다 요양원, 노인정 등을 찾아다니며 노인들의 머리를 다듬어주고 있다.



지난해부터 김병록 씨가 시작한 동전 모으기 운동 '행운의 항아리'.